

日 전범기업 상대 집단 손해배상 본격화...537명 참여

근로정신대 시민모임·민변 공동추진
강제징용 피해자·유가족 신청
부상 후유증 사망·실명 등
안타까운 사연들 줄이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모두 53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7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집한 결과, 방문 접수 489명·우편접수 48명 등 총 537명이 신청했다.

신청서를 살펴보면 강제징용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줄을 이었다. 서모(73·광주시 남구 진월동)씨의 부친은 1941년 5월, 일제 경찰에 의해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한 탄광으로 끌려가 일을 하던 중 1945년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머리·가슴·등을 심하게 다쳤다. 응급처치를 받고 같은해 11월 해남집으로 돌아왔지만 병상 신세를 지다 1950년 2월, 42세로 별세했다. 서씨는 "초등학교 1학년날을 다니다 아버지 병수발을 위해 중퇴한 이후 학교도 못 다녔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모(여·89·나주시)씨는 13살 나이에 광주 가네보(鎭紡) 방직공장에 동원돼 하루 12시간 이상 베짜는 일을 하다 일본인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을 실명했다. 소송 신청서를 낸 최씨의 아들은 "한쪽 눈으로만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을 꼭 받고 싶다"고 밝혔다. 전화문의를 한 피해자 가족은 외삼촌 3명이 모두 강제동원돼 2명이 일본에서 숨지고 1명은 행방불명됐다. 문씨는 당시 외삼촌 3명 모두 결혼을 안했고 외조부모도 돌아가신 뒤라 위로를 할 곳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간신히 귀국했지만 이후 여순항쟁에 휘말려 대전 교도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민변)는 신청서를 검토해 기해기업이 불분명하거나 군속·군인 징용 관련,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국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대표는 "당초 예상보다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다양한 사연이 접수된 것으로 봤을 때 일제 강제징용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에게 대한 보상·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인 광주·전남지역 노무 동원 피해는 2만6540건에 이른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교육청 내년부터 일부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 제공

전남교육청이 내년부터 일부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7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아침 간편 급식을 하기로 하고 대상, 예산 검토 등 준비에 들어갔다.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규모와 대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일부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움직임에 발맞춰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삼각김밥, 떡, 식혜 등을 제공해 학생 건강을 챙기고 쌀 소비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보라미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3월 도정 질의에서 "도교육청이 초·중·고생 19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일 먹는다'고 답한 학생은 56.8%, '가끔 먹는다' 또는 '먹지 않는다'는 학생은 42.9%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장석옥 전남도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제공에 대해) 농어촌지역 시범사업을 위해 도나 지자체의 협력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부터 부분적으로는, 초등학생이든 어떤 형태든 간편식 제공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난 6일 오후 장흥군 부산면 남해고속도로 제암산 1터널 출구를 지나던 SM5 승용차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어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목포대 10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 개최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목포대 70주년 기념관 정상목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인문대학이 주최하고 인문대학 사학과와 도시문화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하며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이 후원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정병영교, 문태고 학생과 목포문화원을 비롯한 많은 지역 시민들이 함께해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전남 다도해권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인문대학 배현 학생은 "100년전 전남 서남권 지역에서 가열차게 불타올랐던 목포 4·8 만세운동, 완도 소안도 3·15 만세운동 그리고 신안 장산도 3·18 만세운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일제 식민 지배에 맹렬하게 저항한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바로 새겨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 학생들의 정신적 지표로 삼기 위해 학술회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주말 전남 산불 잇따라...건조한 날씨 산림관리 비상

사망자 2명을 낸 강원 고성·속초의 산불이 발생한 지난 주말 전남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전남 지역 산림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3000㎡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헬기와 소방관들에 의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진화됐다. 불은 인근 인가로 번지지 않아 인명·주택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물 일부가 불에 타 140여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은 인근 주민이 야산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에는 장흥군 부산면 남해고속도로 제암산 1터널 출구(목포 방향)를 지나던 A(여·44)씨의 SM5 승용차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임야 330㎡를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을 갖길에 세우고 대피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일까지 전남에서 30건의 산불이 발생해 12.19ha의 임야를 태웠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 보다 두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예년(2009~2018년) 평균 22.7건보다 32.1% 높은 것이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1 달뜨기 08:00
해질 18:59 달지기 21:46

한낮 포근
대체로 맑고 아침에 안개끼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9/20	보성	맑음	7/20
목포	맑음	8/16	순천	맑음	10/21
여수	맑음	11/19	영광	맑음	5/17
나주	맑음	5/21	진도	맑음	7/17
완도	맑음	10/21	전주	맑음	5/19
구례	맑음	7/21	군산	맑음	5/17
강진	맑음	8/21	남원	맑음	7/20
해남	맑음	6/19	흑산도	맑음	8/12
장성	맑음	4/1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1.5	북서~북	1.0~1.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0~1.5	북~북동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12	04:03
	21:23	16:10
여수	04:38	10:51
	16:51	23:17

◇주간 날씨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	☁	☀	☀	☀	☀	☀
8/18	7/17	6/16	5/19	7/19	8/18	9/18

◇생활지수

- 뇌졸중: 보통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보통

www.scourt.go.kr

대법원

잠자고 있는 「공탁금·송달료」 찾아가세요

국고귀속 예정 공탁사건 조회

-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법원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돕기 위하여 국고귀속 예정인 공탁 사건을 대한민국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법원에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방법
- 대한민국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사건검색** →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신분확인 관계상 전화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보관금 환급

- 사건 종결 후 남은 송달료·보관금을 아직 환급받지 못한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송달료 잔액
- 송달료 수납은행 또는 신한은행 전국 점포에서 환급 청구
- 보관금 잔액
-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환급받거나 우편으로 계좌입금 신청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출력 가능)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